

원주시의 근·현대 도시발전과 특성

Urban Development and Characteristics of Wonju in the Modern and Contemporary Periods

○박혜림* 박 훈**
Park, Hye-Rim Park, Hoon

Abstract

In recent years, Korea's small and medium-sized cities—once pivotal drivers of national socio-economic development—have faced growing challenges. The nationwide trend of population decline has disproportionately affected these regional urban centers, leading to a series of policy initiatives aimed at revitalization. However, the effectiveness of such measures remains uncertain. In this context, a thorough historical examination of the transformation of regional cities during the modern and contemporary periods has become an urgent scholarly undertaking. This study focuses on Wonju, one of the principal cities in Gangwon Province, to investigate the evolution of its urban environment across distinct historical phases. By categorizing the city's development into three periods, the research seeks to identify and contextualize the defining characteristics of each stage. The proposed periodization is as follows: ·Phase I (Japanese Colonial Period to 1955): This phase is marked by the initial formation of the urban core and the establishment of administrative boundaries, which laid the foundational spatial framework of the city. ·Phase II (1956–1999): During this period, Wonju experienced continued urban consolidation, characterized by the emergence of traditional marketplaces and the construction of railway infrastructure traversing the city center—developments that reinforced its regional centrality. ·Phase III (2000–Present): This phase is defined by significant spatial restructuring, including the expansion of the urban area, relocation of the municipal government complex, and the development of adjacent innovation and corporate cities. These changes have substantially reshaped the city's spatial configuration. Throughout these phases, Wonju's residential environment has undergone continuous transformation, reflecting broader socio-political and economic shifts.

키워드 : 원주시, 근현대 발전사, 공간정치이론, 지적자료, 도시형태, 원도심

Keywords : Wonju City, modern and contemporary history of development, Spatial Political Theory, Cadastral data, Urban Form, the original city center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중소도시에 대한 관심이 높다. 주로 쇠퇴하고 심지어 소멸의 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이와 같은 시점에 도시건축관점에서 필요한 노력은 무엇일까?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시작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강원도의 대표 도시 원주시를 대상으로 하였다. 특히 공간적 범위로는 1차적으로 역사적 발전사 과정에서 사람들의 삶의 궤적이 가장 많이 남아있는 원도심 지역(약 11km)을 대상으로 하며, 2차로는 원주시 전역을 대상으로 한다. 본 연구를 통해 근현대 발전사 과정에서 형성된 원주시의 도시 형태 측면에서의 특징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방법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원주시의 근·현대 발전사 과정에서 도시 형태의 변화 특성에 주목하여 현장을 답사, 조사, 분석하였다. 공간정치관점에서 분류한 시기별 지적자료의 분석을 통해 통시적 변화양상을 확인하고 영향요인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에 따른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대상 지역의 현장 답사 및 조사를 하여 자료화하

였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통해 도출된 내용을 맵핑 등을 통해 도면화하고, 주요 건축물의 실측 및 지역 주민의 면담을 종합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2. 이론연구

2.1 중소도시의 의의와 공간정치 측면에서 분석의 의미
수도권 중심의 집중화 양상이 점차 가속화되고 있다. 이는 인적자원과 재화 등 도시가 작동하는데 기본이 되는 요소를 비롯하여 연구 영역에 또한 이와 같은 양상이 나타난 지 이미 오래다(Park, 2022, 2023). 다수의 지방 도시가 소멸 위기에 처하여 위기감이 더해가고 있는 시점에 도시건축차원의 가치를 발굴하고 향후 행정구역의 재구조화 또는 도시환경의 변화를 준비하는 것은 너무도 시급하다. 이에 근현대 발전사 과정에서 나타난 특징을 분석하기 위하여 공간정치이론에 근거하여 분석을 시도하였으며, 실제 물리적 환경분석은 도시 형태 개념에 근거하여 접근하였다. 공간정치 개념은 현대 사회의 복잡성과 다양성을 설명하는 데 적합한 이론으로 지속적인 선행 연구를 통해 검증하고 있다(Park, 2021, 2022, 2023). 근현대 발전사 과정에서 겪고 있는 우리 사회의 산업구조 개편과 신도시의 개발, 인구의 감소로 인한 지역사회 쇠퇴 등 정치, 경제적 차원에서의 다양한 문제를 분석하고 종합적 문제해결 접근이 필요한 게 현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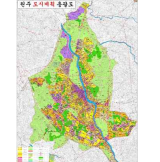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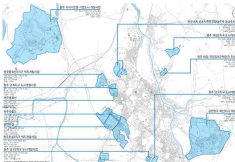
2.2 원주시의 근·현대 도시발전과정에서의 특징

* 강원대학교 건축학전공 학부연구생

** 강원대학교 건축학전공 교수, 건축학박사

(Corresponding author : Department of Architecture, Kangwon National University, urispace@kangwon.ac.kr)

표 1. 근현대 발전사과정에서 원주시의 주요 특징

구분	주요 현황	특징
1기 (1910-1954)	    	• 1905 원주읍교회, 문막감리교회 설립 • 1916 행정구역 개편, 원주군 체계 확립 • 1938 원주읍 승격 • 1940-41 중앙선 개통(원주역 설치) • 일제강점기 원주역 전면의 A-B-C도로로 불린 원도심의 구조 형성 -> 6.25전쟁이후 원일로(A도로), 중앙로(B도로), 평원로(C도로)로 군사용 도로 체계 중심으로 재건
2기 (1955-1995)	     	• 1955 원주시 승격 • 1971·1975 영동고속도로 개통 • 1984 치악산 국립공원 지정 • 원도심의 재래시장 (원주남부시장(1965), 원주자유시장(1965), 원주중앙시장(1965), 원주단구시장, 원주도래비시장(1983) 등) 중심으로 주요 상권이 형성 • 1980년대 택지개발사업이 시작되었으며, 대표적으로 원주백간(1994), 원주단계(1993) 등을 들 수 있음 • 오늘날 원주시 원도심의 도시구조 형성
3기 (1996 - 현재)	     	• 원주시, 원주군 통합 • 원주기업도시 유치(06-29) • 원주혁신도시 유치(07-16) • 원도심의 지속적인 정비와 주변으로의 정주환경 확장을 위한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 진행 • 정비사업 등의 영향으로 공동주택위주의 정주환경으로 지속적인 변화 -원주봉화산 (2006) -원주무실3 (2009) -원주무실 (2001) -원주무실2지구택지개발사업 (2012) -원주태장2지구도시개발사업(2019)등

※참조: 1.원주문화원(<https://www.wjmunwha.or.kr/>)2025.07 2.원주시청(<https://www.wonju.go.kr/www/index.do>)2025.07 3.3기의 원도심 현황자료는 현장 답사조사를 통해 맵핑(2025.07-08) 등

1914년 일제에 의해 강행된 부군면통폐합의 과정을 거쳐 기존 원주군이 유지되었으며, 1916년 원주군은 10개면 67개리로 행정구역이 설정된다. 이후 1938년 45년 꾸준히 세부 행정구역 단위가 변화하였으며 1955년 18개 동으로 원주시가 설치되었으며, 원주군의 명칭이 원성군(原城郡)으로 변경되었다. 1946년까지 인구 20,000명의 소읍이었으며, 한국전쟁 이후 급속하게 성장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2000년 이후 원주 기업도시 유치(06-29), 혁신도시 유치(07-16)를 통해 강원도의 대표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으며, 도시환경의 변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는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3. 결론

본 연구를 통해 도출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원주시의 근현대 발전사 과정에서의 시기 분류를 시도하였으며, 일제강점기-1954년까지 1기, 이후 1995년까지 2기, 그리고 현재까지 3기의 시기 분류가 가능하며, 이는 정치적, 경제적, 환경적 특성에 기반한다. 1기의 원도심 중심의 도시형성과 행

정구역 설정은 세부적인 변화를 통해 2기의 시기에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며 재래시장 중심의 상권과 중심지를 지나 는 철도 등의 영향으로 원주시의 중심성을 갖게 된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서 시가지의 확장과 시청 이전, 주변의 혁신도시, 기업도시의 유치와 조성으로 인하여 도시공간구조의 변화를 갖게 되며, 정주 환경 또한 시기의 변화에 따라 변화를 거듭하게 된다.

참고문헌

1. 박혜림·박훈(2024), 강원 영서지역 춘천시의 근·현대 발전사 연구, 2024년 대한건축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pp.824-825
2. 김기태·박훈(2023), 강원 영동지역 고성군의 근·현대 도시발전과 특징, 2023년 대한건축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pp.897-898
3. 원주문화원(<https://www.wjmunwha.or.kr/>) 2025.07
4. 218Labplus 내부 세미나 자료